

# 《朝鮮館譯語》에 나타난 近代漢語 韻尾 변화\*

— 天文門을 중심으로 —

朱星一\*\*

---

## ◁ 목 차 ▷

---

- I. 들어가기
  - II. 조선 초기 韓中 譯音 자료의 가치
  - III. 《朝鮮館譯語》〈天文門〉의 寫音 분석
  - IV. 終聲 寫音의 대응관계
  - V. 결론
- 

## I. 들어가기

《朝鮮館譯語》는 명나라 초기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주변국의 어휘들을 중국어로 번역 편찬한 《華夷譯語》에 수록된 朝鮮語 어휘집이다. 하지만 정확한 편찬 시기에 대한 기록은 전하지 않고, 다만,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대체로 주변국가에서 오는 사신들의 언어통역 및 영접을 위해 永樂 6년(1408년) 北京에 설치된 會同館에서 편찬된 것으로 판단되며, 그 편찬 시기는 永樂年間(1403년~1424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1)</sup>

《朝鮮館譯語》에는 天文門(55)·地理門(64)·時令門(40)·樹木門(36)·鳥獸門(43)·宮室門(27)·器用門(38)·人物門(37)·人事門(63)·身體門(35)·衣服門(26)·聲色門(13)·珍寶門(18)·飲饌門(18)·文史門(14)·數目門(22)·干支門(12)·卦名門(12)·通用門(23) 등 총 19門 596개에 달하는 조선어 어휘들이 中國 文字로 音譯되어 있다. 音譯에 사용된 한자의 수는 〈天文門〉에만 총 299개

---

\* 이 논문은 2013년도 명지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명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1) 文璇奎(1962, p.221), 姜信沆(1995, p.6), 이윤동(2002, p.23).

(중복자 포함)이며, 이 중 201개의 한자는 당시 한국어 어휘의 음절을 寫音한 것이며, 나머지 98개의 한자는 한국 한자음에 대한 寫音으로, 당시 중국어의 어음체계를 살필 수 있는 적지 않은 音譯 기록을 담고 있다.

기록의 형식은 天 哈嫩二 忝 / 日 害 忍 등과 같이 각 행을 세로 3단으로 나누고 제1단에는 중국어를 기록하고, 제2단에는 제1단에서 제시한 한자의 의미에 해당되는 조선어 어휘의 발음을 중국어로 전사하고, 제3단에는 제1단에 제시된 한자에 대한 한국 한자음을 중국어로 전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天 哈嫩二 忝”에서 제1단의 “天”은 의미, 제2단의 “哈嫩二”은 “天”의 의미를 갖는 한국어 “\*하늘”의 발음에 대한 중국어 전사 표기, 제3단의 “忝”은 “天”의 한국 한자음 “\*턴”을 중국어로 전사한 것이다.

주지하듯, 근대한어 시기는 중고시기 聲韻 체계에서 全濁音의 소실, 零聲母의 증가, 舌尖後音의 생성, 入聲韻의 소실, -m 韻尾의 -n화, 兒化韻의 생성 등 현대한어로 발전하는 다양한 과도기적 음운 변화가 대거 발생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근대한어의 어음변화 과정과 변화 시기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여전히 견해들이 분분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朝鮮館譯語》의 〈天文門〉에 조선 초기 한국어 음절 寫音을 위해 사용된 한자들의 어음을 분석하여, 15, 16세기 중국의 韻尾 변화에 대한 견해를 보태고자 한다. 총체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총 19門에 출현하는 596개의 어휘 모두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일일이 그 音譯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지만, 기초자료의 분석을 끝낸 시점에서 볼 때, 韻尾의 변화 현상을 살피는데 있어서 각 門에서 출현하고 있는 모든 어휘의 사음을 분석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었었다. 다만, 기왕이면 객관적인 설득력의 제고를 위해 전체의 어휘를 대상으로 한 취사선택보다는 1개 門의 전면적인 분석을 통해 결론에 다다른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판단되어, 《朝鮮館譯語》에서 가장 먼저 출현하는 〈天文門〉에 출현하는 55개 전체 어휘와 이를 音譯하기 위해 사용된 총 299개의 한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당시의 韻尾 변화 현상을 고찰하기로 한다.

기존의 《朝鮮館譯語》에 대한 연구에서는 그 音譯의 분석에 있어서 동시기에 편찬된 중국 운서의 反切音이나 分韻 체계를 기초로 제 학자들이 추정된 재구음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을 참고하되 음역의 분석에 있어

서 기존의 韻書의 재구 결과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당시 중국의 현실어음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翻譯老乞大·朴通事》의 左音과 右音을 비롯하여 《洪武正韻譯訓》의 俗音, 그리고 《四聲通解》의 今俗音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그 音譯 대응관계를 고찰하는 방식으로 당시 중국어음의 韻尾 변화를 묘사하고자 한다.

## II. 조선 초기 韓中 譯音 자료의 가치

전통음운학에서 중국어 음절은 韻尾의 성질에 따라 陰聲韻과 陽聲韻 그리고 入聲韻으로 분류된다. 중고시기를 기준으로 볼 때, 陰聲韻은 韻尾가 開音節로 이루어져 있고, 陽聲韻은 鼻音인 [-m], [-n], [-ŋ] 韻尾로 이루어져 있으며, 入聲韻은 無聲破裂音인 [-p], [-t], [-k]로 이루어져 있다. 근대한국어에서 현대한국어에 이르기까지 韻尾의 변화는 주로 陽聲韻에서의 [-m] → [-n] 귀속 과정과 入聲韻에서의 [-p], [-t], [-k] 소실 과정을 일컫는다.

《朝鮮館譯語》의 편찬시기를 永樂年間(1403년~1424년)이라고 추정할 때, 그 시기는 묘하게도 1443년 訓民正音が 창제된 시기와 맞물린다. 주지하듯 訓民正音が 창제되자마자 조선에서는 강력한 정부 의지에 따라 《洪武正韻譯訓》(1455년), 《四聲通考》(1455년), 《翻譯老乞大·朴通事》(1517년 이전), 《四聲通解》(1517년) 등 訓民正音を 이용한 韓中 譯音 자료들이 대거 편찬한다. 이 중에서도 《翻譯老乞大·朴通事》는 중국어 회화 학습서로서 각 한자에 따른 당시 중국의 실제 음가가 고스란히 한글로 轉寫하고 있으며, 《洪武正韻譯訓》에서는 《洪武正韻》의 反切音 외에도 反切音과 현실어음이 서로 다를 경우 俗音을 따로 기록하고 있고, 《四聲通解》에서는 俗音으로부터의 일정한 현실 어음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今俗音을 기록하고 있으니, 이러한 韓中 譯音 자료들은 당시의 현실 중국어음을 담고 있는 寶庫가 아닐 수 없다.

《朝鮮館譯語》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당시 한국어의 音譯에 해당하는 중국어 한자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中原音韻》(1324), 《韻略易通》(1442), 《韻略匯通》(1642) 등의 反切音에 대한 중국학자들에 제 견해와 그 재구음들을 기초로 하여 해당 음소들의 변화를 고찰하고 있다. 물론 韻書의 反切이나 分韻 체계

가 近代漢語 연구에 있어서 귀중한 어음 자료임에는 분명하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訓民正音으로 기록된 注音符號 자료와는 아래와 같은 질적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첫째, 韻書는 그 편찬목적에 따라 현실음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운서 출현 시기의 현실 어음을 고찰하는 데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어음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며 끊임없이 변화 발전한다. 하지만 이러한 세밀한 변화를 分韻 과정에서 모두 반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대적인 차이는 있으나 다분히 규범적인 혹은 인위적인 요소들이 작용될 수 있어 현실어음의 파악에는 크고 작은 한계가 따를 수 있다.

둘째, 현실음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韻書라 하더라도, 한자의 어음을 기록하고 있는 反切 역시 한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反切에 관하여 현대 학자들의 추정하고 있는 反切의 재구성은 서로 다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정확성도 담보할 수 없다.

셋째, 당시 중국 현실어음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訓民正音은 표음문자였기 때문에 韻書의 反切에 대한 재구성과는 그 과학적인 측면에서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더구나 중국어의 학습은 외교와 무역 등 현실적인 교류를 위함이었기 때문에 중국어 학습에 있어서 실용적인 현실어음이 중시되었을 것임은 추측 가능한 일이다. 예를 들어, 《洪武正韻譯訓》에는 韻書의 反切音, 즉 正音을 訓民正音으로 전사하는 것은 물론이요, 韻書의 反切音이 현실어음과 괴리가 있을 경우, 현실어음을 俗音이라 하여 따로 기록하고 있으며, 《四聲通解》에는 俗音에서 일정 정도의 변화가 감지되는 今俗音을 따로 기록하고 있어, 당시의 중국 현실 어음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손색이 없는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朝鮮館譯語》의 音譯에 사용된 한자들의 중국어 讀音 분석을 위해 중국 제 학자들의 韻書 재구음으로부터는 과감하게 탈피하고자 하며, 《飜譯老乞大·朴通事》 左音과 右音 그리고 《洪武正韻譯訓》의 俗音을 주요 분석 자료로 사용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四聲通解》의 今俗音 및 선행연구 결과를 참고하도록 하겠다.

### Ⅲ. 《朝鮮館譯語》〈天文門〉의 寫音 분석

본고의 주요 분석 대상과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도록 한다.

첫째, 《朝鮮館譯語》에서 天文門에 출현하는 총 55條 어휘의 각 음절을 寫音하기 위해 사용된 제2단과 제3단의 모든 한자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둘째, 당시 한국어에서 無聲破裂音 終聲 [-p], [-t], [-k] 및 舌側音 終聲 [-l] 음절을 비롯하여 鼻音 終聲 [-n], [-m], [-ŋ] 음절들을 사음하기 위해 사용된 한자들의 韻尾를 집중 분석한다.

셋째, 韻尾의 상호 불일치 대응에 관하여 그 이유를 분석하고, 실제적인 운미 변화를 암시하는 이러한 차이들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해석에 도달하도록 한다.

넷째, 音譯에 사용된 중국어 각 음절들에 대하여, 먼저 중고시기 聲母와 韻母 그리고 聲調를 비롯한 음운 조건을 제시하고(“[中]”), 조선 초기 韓中 譯音 자료에 나타난 해당 음절의 훈민정음 전사는 각각 《洪武正韻譯訓》과 《四聲通解》의 正音(“[正]”) 및 俗音(“[俗]”), 《翻譯老乞大·朴通事》의 左音(“[左]”) 및 右音(“[右]”)를 기록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四聲通解》의 今俗音(“[今]”)을 기록한 다음, 전사에 사용된 각 한자들과 한국어 음절 간의 대응 관계를 분석하여 그 음가를 추정한다. 韓中 譯音 자료에서 중국어 譯音을 위해 사용된 훈민정음 각 음소들에 대한 추정음은 선행연구인 朱星一(2000년, pp.268~271)을 따르며, 필요할 경우에는 따로 부가적인 설명을 하도록 한다.

	제1단	제2단		제3단	
〈天1〉 <sup>2)</sup>	天	哈嫩二	*하늘	忝	*턴

- 哈 [中]呼合切[ɣɔp], 匣合開一入咸<sup>3)</sup> [正]협<sup>4)</sup> [俗]형 [左]형<sup>5)</sup> [右]허

2) 조선 초기 한국어와 한국 한자음에 관한 추정음은 姜信沆(1995년)과 南廣祐(2009)를 참고하였으며, 〈天文門〉(“天”)의 어휘 출현순서에 따른 번호를 덧붙이도록 한다. 경우에 따라서 조선 초기 譯音 자료에 나타난 기록 앞에 \*로 표기한 것은 해당 자료에 출현하지 않으나, 조선 초기 해당 자료에서 중고시기 동일 음운조건에 해당하는 글자들의 전사를 대신하여 옮겨온 것이다.

3) 匣母 合口 開口 一等 入聲 咸攝, 이하 음운조건 표기 순서는 이와 같다.

- 嫩 [中]奴困切[ien], 泥恩合一去臻 [正]눈 [俗]\*눈<sup>6)</sup>
- 二 [中]而至切[ri], 日至開三去止 [正]시 [俗]슌 [左]슌 [右]스
- 添 [中]他兼切[thiem], 透添開四平咸 [正]텀 [俗]턴 [左]턴 [右]턴

제2단의 “哈嫩二”에서 “哈”은 한국어 “하”에 대한 寫音이다. “嫩二”은 “늘”에 대한 寫音이다. 寫音 과정에서 “哈”의 韻尾 “-ㅎ”([-ʔ])가 무시되고 있으며, “嫩”과 “二” 두 음절을 이용하여 “늘”을 音譯하고 있는데, “嫩”의 韻尾 “-ㄴ”([-n])이 무시되고, “二”에서는 그 聲母 “ㄷ”([-ʔ-])만을 사용하여 한국어 終聲 “-ㄹ”([-l])을 寫音하고 있다.

한편, 俗音과 左音에 나타나고 있는 全濁音 형태의 기록은 청음화로 인해 발생하는 성조의 변이를 자모의 차별로 인식하였을 뿐 현실어음에서 全濁音은 이미 소실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俗音 “형”의 실제 음가는 “형”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며,<sup>7)</sup> “二”은 日母 글자로 近代漢語 시기에 兒化과정을 거쳐 현대에는 捲舌音 [ʌ]로 발전하지만, 조선 초기 對譯音 자료에 따르면, 15, 16세기까지 日母 開三 글자들의 轉寫에서 中聲의 변화( | → -)는 관찰되지만, 아직 捲舌音의 단계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sup>8)</sup> 제3단의 “添”은 제1단의 “天”에 대한 당시의 한국

- 4) 《洪武正韻譯訓》의 正音에서는 각 入聲韻에 無聲破裂音 終聲을 그대로 쓰고 있으며, 《四聲通解》에서도 入聲韻은 陽聲韻과 함께 배치하고 있으나, 각 韻의 序頭에 入聲韻의 終聲을 따로 일괄 표기하고 본문의 각 字母 아래에서는 無聲破裂音 終聲을 일일이 따로 표기하지는 않고 있다. 예를 들어, 舒聲 韻目인 “覃感勘” 아래에는 韻의 終聲 -ㄱ을 쓰고, 이와 함께 배열되고 있는 入聲 韻目인 “삼” 아래에는 韻의 終聲 -ㅅ을 쓰고 있다.
- 5) 중고시기 入聲字들은 俗音과 左音 기록에서 藥韻을 제외하고는 모두 聲門破裂音 終聲 “-ㅎ”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入聲韻 [-p, -t, -k]의 陰聲韻化 과정에서의 과도기적 음가인 [-ʔ]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만, 여전히 入聲韻으로 분류된다. 한편, 國俗撰字之法을 따르고 있는 右音에서 “-ㅎ”는 終聲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左音의 [-ʔ]를 현실음에 더욱 가까웠을 것으로 판단한다.
- 6) 《四聲通考》〈凡例·제1조〉에 따르면 “운도와 운서 등 여러 서적과 지금 중국 사람이 사용하는 바로써 그 자음을 정하고, 또 중국의 현실음으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중국현실어음이면서 운도나 운서의 음과 맞지 않는 것은 글자마다 원래의 반절 아래 俗音이라고 써서 표시한다.”고 하였으니, 反切音인 正音이 현실음과 차이가 있을 경우에 그 현실음을 “俗音”이라 하여 기록한 것이니 俗音의 기록이 없는 것은 正音 자체가 현실음에서 통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 7) 이하 俗音에서 전탁을 표시인 각자병서 기록을 音釋함에 있어서는 이에 상응하는 淸音 혹은 次淸音으로 표기한다.

한자음 “턴”에 대한 寫音으로 중고시기의 [-m] 韻尾 글자로 “-ㄴ” 終聲 음절을 寫音한 것인데, 《洪武正韻譯訓》과 《四聲通解》에서 비록 正音에서는 “뎡”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俗音에서는 모두 “턴”으로 기록하고 있어, 당시 중국 현실음에서는 [-m]→[-n] 變化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sup>9)</sup> 중고시기 [-m] 韻尾를 가지는 陽聲韻 咸攝과 深攝 글자들은 《翻譯老乞大·朴通事》左音과 右音에서도 모두 “-ㄴ”으로 기록되고 있다.<sup>10)</sup>

하늘: 허(ㅎ) + [누(ㄴ) + ㅏ (ㅏ)]      턴: 턴  
 ha-nɛl = xə-nu + ɹ(r)                      tʰiən = tʰiɛn

〈天2〉	日	害	*히	忍	*실
	• 害	[中]胡蓋切[ɣei], 匣泰開一去蟹	[正]혜 [俗]*혜 [左]혜 [右]해		
	• 忍	[中]而軫切[rjɛn], 日軫開三去臻	[正]신 [俗]*신 <sup>11)</sup>		

제3단의 “忍”은 제1단의 “日”에 대한 한국 한자음 “실”에 대한 음역으로, [-] 終聲 음절을 陽聲韻 [-n] 韻尾 글자로 사음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어 [-] : 중국어 [-n]의 대응은 《朝鮮館譯語》에서 적지 않게 출현되고 있으며, 중국어 어음체계와 한국어 어음체계 간의 근본적인 차이로 인한 寫音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

8) 朱星一(2011년, pp.305~313)에서는 日母가 “-”와 결합하고 있는 개구 3등 글자들에 대해서는 [ɹ]→[ɹ]의 變化가 있었음을 제시하고 있다.  
 9) 《四聲通解》〈凡例·제24조〉에는 “諸韻終聲‘ㄴ’之呼不相混, 而眞以侵覃鹽合口終聲, 漢俗皆呼爲‘ㄴ’, 故眞與侵, 刪與覃, 先與鹽之音多相混矣.”라 하여, -m운미의 -n화가 이루어졌음을 설명하고 있다.  
 10) 《翻譯老乞大·朴通事》에서도 대부분 좌음과 우음의 終聲에 -ㄴ[-n]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유독 深攝의 “甚”에 대해서는 그 終聲에 모두 -ㄴ[-m]으로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그 용례를 보면 모두 “甚麼”에서 출현하고 있으므로, 이는 “甚”의 韻尾 -n이 “麼”의 聲母 -m에 동화되어 雙唇音 終聲으로 청취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11) 비록 《翻譯老乞大·朴通事》에도 “忍”자가 출현하지는 않지만, “刃認” 등 臻攝 日母開口 3等 글자들의 左音과 右音이 모두 “신”으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 초기 日母 글자의 전사음 初聲 ㅏ의 음가에 관하여는 朱星一(2000, pp.203~205)에서 止攝 開口 3等(中聲‘ㅏ’)과 通攝 合口 3等(中聲‘ㅏ’)의 日母에서만 [ɹ]가 실현되었으며, 기타 韻의 開口 3等 혹은 合口 3等에서는 介音 혹은 主要母音의 轉寫에 여전히 ‘ㅣ’를 사용하고 있어, 여전히 舌葉音 [ɹ] 단계에 머물고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





들: [되(ㄹ) + ㄷ (ㄷ)]                      율: 오  
 tel=tei+z(r)                                  uəl=o

〈天4〉	星	別二	*별	省	*성
	• 별	[中]皮列切[bjət], 並薛開三入山	[正]뻬 <sup>14)</sup>	[俗]뻬 [左]뻬 [右]뻬	
	• 省	[中]所景切[fɛŋ], 山梗開二上梗	[正]싱	[俗]승 [左]승 [右]승 <sup>15)</sup>	

제2단의 “別二”은 한국어 “별”에 대한 사음으로 2음절 합음 방식으로 1음절을 역음한 것이며, “別”[piɛʔ]에서의 韻尾는 무시되고 있다.

별: [벼(ㄹ) + ㄷ (ㄷ)]                      성: 승  
 piəl<sup>16)</sup>=piɛ+z(r)                              siəŋ=fəŋ

〈天5〉	風	把論	*뵤름	捧	*풍
	• 把	[中]博下切[pa], 幫馬開二上假	[正]바	[俗]*바 [左]바 [右]바	
	• 論	[中]盧昆切[luən], 來魂合一平臻	[正]륜	[俗]륜 [左]륜 [右]륜	
	• 捧	[中]符容切[bjwŋ], 並鐘合三去通	[正]뵤	[俗]*뵤	

제2단에서 “論”은 한국어 “름”에 대한 寫音으로, [-m] 終聲 어음을 [-n] 韻尾 음절을 사용하여 譯音하고 있다. 한국어의 [-m] 終聲 음절을 -n 韻尾 글자로 寫音하고 있음은 중국어 어음체계에서 이미 [-m] 韻尾가 [-n] 韻尾에 귀속되어, [-m] 終聲 음절을 사음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같은 陽聲韻 계열의 韻尾 -n으로 대체한 것으로 판단된다.

14) 한국어 한자음에서 “-ㄹ” 종성을 갖는 글자들에 대하여 《洪武正韻譯訓》 正音에서는 “뻬”, 《四聲通解》 正音에서는 “뻬” 등 그 正音 終聲을 각각 -t와 -l로 기록하고 있다.  
 15) 《翻譯老乞大·朴通事》의 左音에서는 중국어 齒音을 기록함에 있어서 齒頭音과 正齒音을 각각 좌우 ㅍ침을 길게 하는 방식(ㅍㅍㅍ, ㅍㅍㅍ)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右音은 國俗撰字之法(ㅍㅍㅍ)에 의한 기록이므로 상용 한국어의 어음체계에 따라서 齒頭音과 正齒音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  
 16) 姜信沆(1995년)에서는 한국어 “별”에 대한 국제음성부호를 [pyəl]로 쓰고 있으나, 사잇소리 -l-를 [y]로 표기할 경우, 撮口呼 高母音 [y]와 혼동을 줄 수 있어, 본고에서는 [i]로 대신한다.

벼름: 바룬

pe-rɛm=pa-lun

풍: 봉

puŋ=fuŋ

〈天6〉	雲	故論	*구름	穩	*운
------	---	----	-----	---	----

- 故 [中]古暮切[ku], 見暮合一去遇 [正]구 [俗]\*구 [左]구 [右]구
- 論-름 〈天5〉참조17)
- 穩 [中]烏本切[uən], 影混合一上臻 [正]운 [俗]\*운<sup>18)</sup> [左]운 [右]운

구름: 구룬

ku-rum=ku-lun

운: 운

un=un(uən)

〈天7〉	雷	別刺	*벼락	屨	*뢰
------	---	----	-----	---	----

- 別-벼 〈天4〉참조19)
- 刺 [中]盧達切[lat], 來曷開一入山 [正]랄 [俗]\*랑 [左]랑 [右]라
- 屨 [中]落候切[ləu], 來侯開一平流 [正]를 [俗]\*를

제3단의 “屨”는 한국 한자음 “뢰”에 대한 사음인데, 《緘譯老乞大·朴通事》에는 출현하지 않지만, 중고시기 流攝 來母 侯韻 開口 1等 글자인 “樓漏” 등 글자들에 대하여 左音에서는 “를”, 右音에서는 “루”를 기록하고 있다. 《緘譯老乞大·朴通事》〈凡例·ㅁㅂ 爲終聲〉條의 설명에 따르면, “...‘ㅁ’本非‘ㄱ’, ‘ㄷ’, 而尤韻之‘ㅁ’呼如ㄷ.”라 하였으니, 左音과 右音의 실제 반영음가는 같으며, 尤韻 終聲에 사용된 “ㅁ”는 모두 “ㄷ”[u]와 같은 음가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벼락: 벼(ㅁ)+랑

piə-rak=piɛ-laʔ

뢰: 를

roi=ləu

17) 이하 “論”에 대한 音釋은 모두 〈天5〉를 참조하도록 한다.

18) 《訓民正音·解例·合字解》에 따르면 한국어의 초성 ㅁ-의 소리값은 ㅁ-과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初聲之‘ㅁ’與‘ㅁ’相似, 於諺可以通用也.”). 《洪武正韻譯訓》에서는 《洪武正韻》의 31성모체계를 고수하면서, 영모와 유모를 분리하였지만, 初聲의 실제 소리 값은 같았을 것으로 판단된다.(朱星一(2000, p.199) 참조)

19) 이하 “別”에 대한 音釋은 모두 〈天4〉를 참조하도록 한다.



서리=스(ㄷ) + 리(ㄷ)

상: 상

sə-li=fɛi<sup>22</sup>-li

saŋ=fuaŋ

〈天10〉	雪	嫩	*눈	捨	*설
-------	---	---	----	---	----

- 嫩-눈 〈天1〉참조
- 捨 [中]書治切[eia], 書馬開三上假 [正]셔 [俗]셔 [左]셔 [右]셔

제3단의 “捨”는 한국 한자음 “설”에 대한 轉寫로서, 陰聲韻 글자로 “-ㄷ” 終聲 음절을 寫音하고 있다.

눈: 눈

설: 셔

nun=nun

siəl=fjɛ

〈天11〉	霧	按盖	*안개	五	*무
-------	---	----	-----	---	----

- 按 [中]烏盱切[an], 影翰開一去山 [正]헌 [俗]\*한 [左]한 [右]한
- 盖 [中]古太切[kai], 見泰開一去蟹 [正]개 [俗]\*개 [左]개 [右]개
- 五-무 〈天8〉참조

제3단의 “五”는 한국 한자음 “무”를 譯音한 것인데, 한국어 初聲 ㄹ-[m-]에 중고시기 疑母 글자를 사용하고 있다.

안개: 안+개

무: 우

an-kai=an-kai

mu=u

〈天12〉	露	以沁	*이슬	落	*로
-------	---	----	-----	---	----

- 以 [中]羊巳切[jiə], 余止開三上止 [正]이 [俗]이 [左]이 [右]이
- 沁 [中]七鴉切[ts<sup>h</sup>ɛm], 清沁開三去深 [正]침 [俗]\*친

22) 기존의 연구인 朱星一(2000, pp.199~204)에서 15, 16세기 한중 대역음 자료를 통해 중고시기의 知章莊 3組 중 莊組와 知組 2等を 비롯하여, 支思韻 章組 글자들은 이미 舌尖後音([tʂ, tʂʰ, ʂ])로 발전하였으며, 知組 3等과 支思韻 이외의 章組는 아직 舌葉音([tʃ, tʃʰ, ʃ]) 단계를 거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 大 [中]唐佐切[da], 定箇開一去果 [正]떠 [俗]따 [左]따 [右]다 [今]따
- 忝-턴 <天1>참조<sup>26)</sup>
- 逞 [中]丑郢切[tʰiɛŋ], 徹靜開三上梗 [正]칭 [俗]\*칭

하늘뭉다: 허(ㄷ) + 눈 + 뭉 + 다                      턴칭: 턴칭  
 ha-nel-mel(k)-ta=xə-nun-meiʔ-ta            tʰiɛn-tʰiɛŋ=tʰiɛn-tʰiɛŋ

〈天14〉	天陰	哈嫩黑立大	*하늘 흐리다	添引	*턴음
	• 黑	[中]呼北切[xək], 曉德開一入曾 [正]획 [俗]횡 [左]횡 [右]회 <sup>27)</sup>			
	• 立	<天9>참조			
	• 大	<天13>참조 <sup>28)</sup>			
	• 引	[中]余忍切[jiɛn], 余軫開三上臻 [正]인 [俗]*인 [左]인 [右]인			

하늘 흐리다: 허(ㄷ) + 눈 + 회(ㄷ) + 리(ㄷ) + 다                      턴음: 턴인  
 ha-nel-hi-ri-ta=xə-nun-xei-li-ta            tʰiɛn-ĩm=tʰiɛn-in

〈天15〉	天上	哈嫩五會	*하늘우회	添賞	*턴상
	• 會	[中]黃外切[yuai], 匣泰合一去蟹 [正]휘 [俗]*회 [左]회 [右]회			
	• 五-우	<天8>참조			
	• 賞	[中]書兩切[ciɛŋ], 書養開三上宕 [正]상 [俗]*상 [左]상 [右]상			

하늘우회: 허(ㄷ) + 눈 + 우 + 회                                      턴상: 턴상  
 ha-nel-u-hii=xə-nun-u-xui                    tʰiɛn-siaŋ=tʰiɛn-fiaŋ

을 담고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좌음과 우음의 주음원칙이 달랐음을 의미하는 좋은 예시이다. 즉, 《韻譯老乞大·朴通事》左音에서는 俗音 및 今俗音과 마찬가지로 《四聲通考》식 1:1 음소 대응법을 사용하였고, 右音은 중국어 입문자들을 위해 國俗撰字之法에 의해 당시의 국어 통용자모만을 사용하여 간단하게 사음한 것으로, 주음의 외형은 다르지만 대상어음은 일치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6) 이하 “忝”에 대한 音釋은 모두 <天1>을 참조하도록 한다.

27) “黑”에 대한 右音에는 “회” 이외에도 “허”와 “히” 등의 전사가 보이고 있으나, 좌 우측음의 일반적인 대립구도를 따라 “회”만을 선택한다.

28) 이하 “大”에 대한 분석은 모두 <天13>을 참조하도록 한다.

〈天16〉	天下	哈嫩阿賴	*하늘아래	添哈	*턴하
	• 阿	[中]烏何切[a], 影歌開一平果		[正]하 [俗]*하 [左]하 [右]아	
	• 賴	[中]落蓋切[lai], 來泰開一去蟹		[正]래 [俗]*래	
	하늘아래:	허(σ)+눈+아+래		턴하:	턴+허(σ)
	ha-nel-a-rai	=xə-nun-a-lai		thiən-ha	=thiən-xə

〈天17〉	天高	哈嫩那大	*하늘높다	忝果	*턴고
	• 那	[中]奴箇切[na], 泥箇開一去		[正]너 [俗]나 [左]나 [右]나	
	• 果	[中]古火切[kua], 見果合一上果		[正]귀 [俗]*귀 [左]귀 [右]고	

제3단의 “果”는 한국어 “고”에 대한 寫音으로, 《翻譯老乞大·朴通事》에서 “果”는 左音과 右音이 “귀”와 “고”로 달리 나타나고 있는데, 〈天3〉의 “馱”에서 이미 설명하였듯이 國俗撰字之法을 따르고 있는 右音이라 할지라도 “귀”와 “고”는 모두 사용이 가능한 표기였으므로, 右音의 “고”는 俗音과의 차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그 변화를 인정하여 현실음에서는 “고”로 읽혔을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四聲通解》에서 “果”자가 속한 歌韻(中聲 ㄱ)의 見母 아래에도 “今俗音從上諸母同.”이라고 한 것을 보더라도 右音에서의 “果”에 대한 “고”의 표기는 그대로 현실음에서의 어음 변화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하늘높다:	허(σ)+눈+나+다	턴고:	턴고
ha-nel-nop-ta	=xə-nun-na-ta	thiən-ko	=thiən-ko

〈天18〉	天邊	哈嫩格自	*하늘ㄴ식	忝扁	*턴변
	• 格	[中]古伯切[kek], 見陌開二入梗		[正]꺅 [俗]*꺅	
	• 自	[中]疾二切[dzi], 從至開三去止		[正]쯔 [俗]쯔 [左]쯔 [右]즈	
	• 扁	[中]方典切[pien], 幫銑開四上山		[正]변 [俗]*변	

제2단의 “格”은 한국어 개음절 “ㄴ”에 대한 사음이며, “格”의 韻尾 [-?]가 무시되고 있다. 한편, “自”는 중고시기 止攝 開口 3等に 속하는 글자인데, 俗音과 左音

표기에는 모두 “-ㄷ”을 終聲으로 삼고 있는데, 《翻譯老乞大·朴通事》(凡例·支紙寘三韻內齒音諸字)에는 중국어 注音에 사용된 訓民正音 終聲 -ㄷ 에 대하여 특별한 언급을 하고 있다. 賈’자(正音‘즈’, 俗音‘중’) 등 韻 內의 齒音 글자들을 발음함에 있어서 “-ㄷ”을 終聲으로 삼아야 정확한 발음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右音에서는 초학자들이 ‘즈’와 -ㄷ 의 합음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國俗撰字之法에 의해 終聲 “-ㄷ”을 제거하고 간편하게 기록하지만 정확한 현실음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左音을 참조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sup>29)</sup> 이는 支紙寘 3韻의 齒音 전사에서 終聲 “-ㄷ”은 당시 중국어 현실음 재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을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다.<sup>30)</sup> 따라서 俗音 및 左音의 “중”과 右音의 “즈”는 비록 注音 원칙의 상이함으로 인해 그 형태는 다르지만 실제로는 동일한 어음에 대한 전사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앞에서 설명한대로 당시 이미 全濁音은 消失되었음을 감안한다면, “중”의 실제어음은 “중”으로 판단되며, 支紙寘 3韻의 齒頭音 및 精組 글자들에서는 이미 舌尖前母音 [ɲ]가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하늘 ㅁ식: 허(ㄷ) + 눈 + 기(ㄷ) + 중                      턴변: 턴변  
 ha-nel-ke-zei = xə-nun-kei-tsa                      tʰiən-ko = tʰiən-pien

〈天19〉    天曉    哈嫩把夏大    \*하늘 붉가다    忝曉    \*턴효

- 把-밖    〈天5〉참조
- 夏        [中]古黠切[kæt], 見黠開二入山    [正]갸    [俗]\*강
- 曉        [中]古堯切[kieu], 見蕭開四平效    [正]경    [俗]강

제2단의 “把”는 “밖”에 대한 음역으로, 한국어 終聲 [-l(k)]의 寫音에 陰聲韻 글자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天5〉에서 “把”는 한국어 개음절 “ㅂ”에 대한 사음으로 사용되었다. 제3단의 “曉”는 《翻譯老乞大·朴通事》에는 출현하지 않지만, 동일한

29) “通考賈字音즈注韻俗音중. 韻內齒音諸字口舌不變, 故以ㄷ爲終聲, 然後可盡其妙. 今按齒音諸字若從通考加ㄷ爲字, 則恐初學難於作音, 故今之反譯皆去ㄷ聲, 而又恐其直從去ㄷ之聲, 則必不合於時音.”

30) 支紙寘 3韻의 齒音 諸字들에 대한 注音에 사용된 “-ㄷ”의 현실성과 합리성은 《四聲通解》支紙寘 韻의 첫머리 설명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언급되고 있다.



어음조건인 글자들은 左音에서 모두 “꺄”를 따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右音은 모두 “꺄”로 표기되고 있다. 《翻譯老乞大·朴通事》〈凡例·제7조〉에 따르면, “ᄃᆞᆫ”은 본래 ‘ㄷ’나 ‘ㄱ’이 아니며, ‘ᄃᆞᆫ’은 본래 ‘ㄷ’나 ‘ㄱ’이 아니다. 蕭爻韻의 (終聲) ‘ᄃᆞᆫ’은 ‘ㄷ’와 발음이 같고, 尤韻의 (終聲) ‘ᄃᆞᆫ’은 ‘ㄷ’와 발음이 같으며, 藥韻의 (終聲) ‘ᄃᆞᆫ’은 ‘ㄷ’나 ‘ㄱ’과 같다.”<sup>31)</sup>고 하였으니, 蕭爻韻의 終聲 사음에 사용한 ‘ᄃᆞᆫ’의 음가는 ‘ㄷ’와 같았을 것으로 판단한다.

하늘불가다: 허(ᄃᆞᆫ) + 눈 + 바 + 가(ᄃᆞᆫ) + 다      턴효: 턴꺄  
 ha-nel-pel(k)-ka-ta=xə-nun-pa-kia-ta      tʰiən-hio=tʰien-kiao

〈天20〉	天晚	哈嫩展根格大	*하늘점글커다	忝完	*턴만
	• 展	[中]知演切[tʰien], 知獮開三上山 [正]전 [俗]*전			
	• 根	[中]古痕切[kən], 見痕開一平臻 [正]근 [俗]*근 [左]근 <sup>32)</sup> [右]근			
	• 格-거	〈天18〉참조 <sup>33)</sup>			
	• 完	[中]胡官切[ɣuan], 匣桓合一平山 [正]훤 [俗]*원 [左]원 <sup>34)</sup> [右]원			

제2단의 “꺄”[keiʔ]을 사용하여 한국어 개음절 “거”를 사음하고 있어, 〈天18〉 “ㄹ”

31) “ᄃᆞᆫ本非ㄷㄱ, 本本非ㄷㄱ之聲, 而蕭爻韻之ᄃᆞᆫ呼如ㄷ, 尤韻之ᄃᆞᆫ呼如ㄷ. 藥韻之ᄃᆞᆫ呼如ㄷ.”

32) “根”의 전사음 “근”의 中聲 “-”의 실제 음가에 대하여 《四聲通解》〈凡例·第7條〉에는 “한국어음체계와 ‘-’로 사음될 때의 실제 반영음가는 ‘-’와 ‘-’ 사이 어음으로 발음해야 하며, ‘-’로 사음할 때의 실제 반영음가는 ‘-’와 ‘-’의 사이 어음으로 발음해야 정확한 중국어음을 얻을 수 있다.”(“大抵本國之音輕而淺, 中國之音重而深. 今訓民正音出於本國之音, 若用於中國漢音則必變而通之, 乃得無碍, 如…… ‘-’則 ‘-’之間: ‘-’則 ‘-’之間……. 然後庶合中國之音.”)고 하였으므로 조선 초기 한중 대역음 자료에서 陽聲韻 [-n] 韻尾 음절에 대한 譯音 “근”은 [kən]으로 재구할 수 있다.

33) 이하 “꺄”에 대한 音釋은 모두 〈天18〉을 참조하도록 한다.

34) 《洪武正韻譯訓》과 《四聲通解》에는 여전히 匣母 寒韻에 배열하고 “又音원”이라 하였는데, 左音과 右音에서는 모두 이 又音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完”에 대한 조선 초기 韓中 譯音의 中聲 “完”에 대하여는 기존 연구에서 [iuɛ]로 재구한 바 있는데(朱星一, 2000, p.210~211), “完”을 [iuɛ]로 재구한 것은 魚韻과 遮韻에 출현하는 “完”에서 “-”와 “-”의 결합이, 尤韻 글자들 중 右音에 출현하는 “完” [iu]에서의 “-”와 “-”의 결합보다 그 유착이 긴밀하기 때문에 이를 구별한 것이며, “完”과 결합하는 “完” [ie]에서 [i]는 “附音(glide)”로 볼 수 있으므로 “完”을 [iuɛ]로 재구한 것이다.

에 이어 사음에 사용된 입성운미 [-?]가 여기에서는 무시되고 있다. 제2단에서 사용된 “根”은 한국어 “글”의 사음으로 한국어의 “-ㄹ” 終聲을 사음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하늘점글거다: 허(°)+눈+전+근+괴(°)+다      던만: 던원  
 ha-nəl-ciəm-kil-kə-ta=xə-nun-tʃien-kən-kei-ta      tʰiən-man=tʰien-iuən

〈天21〉 

天旱	哈嫩格悶格大	*하늘 ㄹ물거다	忝罕	*던한
----	--------	----------	----	-----

- 悶 [中]莫困切[muən], 明憫合一去臻 [正]문 [俗]믄 [左]믄 [右]믄
- 罕 [中]呼旱切[xan], 曉旱開一上山 [正]헌 [俗]한 [左]한 [右]한

제2단의 “悶”은 한국어 “믄”에 대한 사음으로 한국어 [-] 終聲 음절을 [-n] 韻尾 음절로 사음하고 있다.

ㄹ물거다: 괴(°)+믄+괴(°)+다      던한: 던한  
 kə-məl-kə-ta=kei-mən-kei-ta      tʰiən-han=tʰien-xan

〈天22〉 

日出	害那格大	*히나거다	忍處	*실출
----	------	-------	----	-----

- 害-히 <天2>참조35)
- 忍-실 <天2>참조36)
- 處 [中]切昌據[tʰɔ], 昌御開三去遇 [正]츄 [俗]\*츄 [左]츄 [右]츄

제3단의 “處”은 한국 한자음 “출”에 대한 寫音으로 [-] 終聲 음절을 陰聲韻 음절로 譯音하고 있다.

히나거다: 해+나+괴(°)+다      실출: 신+츄  
 hei-na-kə-ta=xai-na-kei-ta      ʒil-tʰiul=ʒin-tʰiu

35) 이하 한국어 音譯에 사용된 “害”에 대한 분석은 모두 <天2>을 참조하도록 한다.

36) 이하 한국어 音譯에 사용된 “忍”에 대한 분석은 모두 <天2>을 참조하도록 한다.



- 必-비 <天8>참조
- 翠 [中]七醉切[ts<sup>h</sup>wi], 清至合三去止 [正]취 [俗]\*취 [左]취 [右]취
- 耶 [中]以遮切[jia], 余麻開三平假 [正]여 [俗]\*여
- 着 [中]直略切[djak], 澄藥開三入宕 [正]작(잡)<sup>38</sup> [俗]잡[左]잡 [右]조

제3단의 “着”은 藥韻에 속하는 글자로, <天12> “落”의 音釋과 같이 兩層摩擦音 終聲 -녕를 사용하고 있다.

히비취여다: 해+비(◌) + 취+여+다                      실조: 신+잡  
 hei-pi-<sup>h</sup>ui-iə-ta=xai-pi-<sup>h</sup>ui-ie-ta                      zil-cio=zin-<sup>h</sup>jiao

<天27>	日暖	害得大	*히답다	忍赧	*실난
-------	----	-----	------	----	-----

- 得-덫 <天3>참조
- 赧 [中]奴板切[nan], 泥漕開二上山 [正]난[俗]\*난

<天3> “得”은 “들”의 “ㄷ”를 사음하기 위해 韻尾 [-?]가 무시되고 있으나, 여기에 서는 “덫”에 대한 譯音으로 사용되었다.

히답다: 해+덫+다    실난: 신+난  
 hei-təp-ta=xai-tei<sup>?</sup>-ta                                      zil-nan=zin-nan

<天28>	月圓	得二朶畧大	*들두렵다	臥完	*일원
-------	----	-------	-------	----	-----

- 得二-들 <天3>참조<sup>39</sup>)
- 朶 [中]丁果切[tua], 端果合一上果 [正]더 [俗]\*더 [左]더 [右]도
- 畧 [中]離灼切[ljak], 來藥開三入宕 [正]략(랍) [俗]랍
- 臥-월 <天3>참조<sup>40</sup>)

“◌”를 고려할 때, 古語 중 “비취여다”의 쓰임이 있음을 고려할 때 “必翠耶大”는 “비취여다”의 음역으로 판단된다.

38) 藥韻의 경우, 《洪武正韻譯訓》의 正音에서는 終聲에 -ㄱ을 쓰고 있으나, 《四聲通解》에 서는 -녕을 사용하고 있다.

39) 이하 “들”에 대한 音譯으로 사용된 “得二”는 모두 <天3>의 분석을 참조하도록 한다.

40) 이하 “월”에 대한 音譯으로 사용된 “臥”는 모두 <天3>의 분석을 참조하도록 한다.

• 完-원 <天20>참조

제2단의 “朶”는 한국어 “두”에 대한 寫音으로, 《翻譯老乞大·朴通事》에서 “朶”는 左音과 右音이 “더”와 “도”로 달리 나타나고 있는데, 右音의 “도”는 《四聲通解》의 今俗音을 따르고 있는 것이며, 重高시기 果攝 合口 1等 글자들의 재구음에 대해서는 <天3>의 “馱”에서 이미 설명하였으며, 이를 따라 “朶”는 [to]로 재구한다. 제3단의 “完”은 한국 한자음 “원”에 대한 음역인데, <天20>에서는 한국 한자음 “만”에 대한 음역으로 사용되어, 聲母 간의 뚜렷한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글자를 사용하고 있다.

둘두렵다: 馱(ㄷ) + 馱(ㄷ) + 도 + ㄹ + 다      월원: 오원  
 tel-tu-liəp-ta = tei + z(r)-to-liao-ta      uəl-uən = o-iuən

<天29>	月缺	得二以思格大	*들잇거다	臥果	*월결
-------	----	--------	-------	----	-----

- 以-이 <天12> 참조
- 思 [中]息茲切[sitə], 心之開三平止 [正]스 [俗]슌 [左]슌 [右]스
- 果-결 <천17>참조

제2단의 “以思”는 2음절 “得二”의 “二”를 이용하여 “들”의 終聲 “-ㄷ”을 전사함과 마찬가지로 “잇”의 終聲 “-ㅈ”을 “思”로 사음한 것이다. 제3단의 陰聲韻 “果”자는 한국 한자음 “결”에 대한 사음으로, 한자음 終聲 “-ㄷ”이 무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天17>에서는 “果”를 사용하여 한국 한자음 “고”를 음역하고 있다.

들잇거다: 馱(ㄷ) + 馱(ㄷ) + [이 + ㄹ(ㄹ)] + 馱(ㄷ) + 다      월결: 오귀  
 tel-ic-kə-ta = tei + z(r)-i + s-kei-ta      uəl-kiəl = o-kuo

<天30>	月斜	得二吉卜格大	*들기블거다	臥捨	*월샤
-------	----	--------	--------	----	-----

- 吉-기 <天24>참조
- 卜 [中]博木切[puk], 幫屋合一入通 [正]북 [俗]붕 [左]붕 [右]부
- 捨-샤 <天10>참조

제2단의 “吉”은 당시 한국어 “기”에 대한 음역인데, 〈天24〉에서는 “희길다”의 “길”을 사음하기 위해 “吉”을 사용하였으며, 제3단의 “捨”[ʃie]는 한국 한자음 “샤”에 대한 음역인데, 〈天10〉에서는 한국 한자음 “설”에 대한 음역으로 사용된 바 있다.

들기불겨다: [디(ㄷ) + ㄹ(ㄹ)] + 기(ㄱ) + 불 + 기(ㄱ) + 다      월샤: 오셔  
 tel-ki-pil-kə-ta = tei + z(r)-ki-pu<sup>2</sup>-kei-ta      uəl-sia = o-ʃie

〈天31〉	月明	得二墨大	*들몹다	臥閔	*월명
-------	----	------	------	----	-----

- 墨-몹      〈天13〉참조
- 閔      [中]眉殞切[mǐn], 明軫開三上臻 [正]민 [俗]\*민 [左]민 [右]민

제3단의 “閔”은 제1단의 “明”에 대한 한국한자음 “명”에 대한 음역이다. 중고시기 이래로 중국어 양성운미에서 [-ŋ]과 [-n]은 지속적으로 대립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의 [-ŋ]을 [-n] 韻尾 글자로 음역하고 있음은 청취과정에서의 오류라고 판단된다.

들몹다: [디(ㄷ) + ㄹ(ㄹ)] + 밍 + 다      월명: 오민  
 tel-məl(k)-ta = tei + z(r)-mei<sup>2</sup>-ta      uəl-miəŋ = o-min

〈天32〉	星多	別二哈大	*별하다	省打	*성다
-------	----	------	------	----	-----

- 別二-별      〈天4〉참조41)
- 打      [中]德冷切[tɛŋ], 端梗開二上梗 [正]다 [俗]\*다 [左]다 [右]다

제3단에 출현하는 “省打”의 “打”는 “多”에 대한 한국 한자음 “다”에 대한 사음으로, 《朝鮮館譯語》에서 “별하다”의 “다” 등 어미에 사용된 “다”에 대해서는 대부분 “大”로 사음하고 있다.

별하다: [벼(ㅍ) + ㄹ(ㄹ)] + 혀(ㅎ) + 다      성다: 승 + 다  
 piəl-ha-ta = pie + z(r)-xə-ta      siəŋ-ta = ʃəŋ-ta

41) 이하 “별”에 대한 훈譯으로 사용된 “別二”는 모두 〈天4〉의 분석을 참조하도록 한다.

〈天33〉	星少	別二哲大	*별적다	星杓	*성쇼
-------	----	------	------	----	-----

- 哲 [中]陟列切[tʃiät], 知薛開三入山 [正]철 [俗]정
- 杓 [中]市若切[ziak], 禪藥開三入宕 [正]약(얏) [俗]얏

별적다: [벼(ᄒᆞᆫ) + ㅅ(ㄷ)] + 정 + 다                      성쇼: 얏  
 piəl-ciək-ta = pie + z(r)-tʃieʔ-ta                      siəŋ-sio: ʃəŋ-ʃiao

〈天34〉	星密	別二擺大	*별비다	生米	*성밀
-------	----	------	------	----	-----

- 擺 [中]北買切[pai], 幫蟹開二上蟹 [正]배 [俗]\*배 [左]배 [右]배
- 生 [中]所庚切[ʃeŋ], 山梗開二平梗 [正]싱 [俗]승 [左]승 [右]승
- 米 [中]莫禮切[miei], 明齊開四上蟹 [正]메 [俗]미 [左]미 [右]미

제3단의 “生”은 한국 한자음 “성”에 대한 음역인데, “生”자의 左音과 右音은 각각 “승”과 “승”으로 서로 다른 기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실제 반영음가는 〈天20〉 “根”에서 설명했듯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별비다: [벼(ᄒᆞᆫ) + ㅅ(ㄷ)] + 배 + 다                      성밀: 승 + 미  
 piəl-pɛi-ta = pie + z(r)-pai-ta                      siəŋ-mil = ʃəŋ-mi

〈天35〉	星稀	別二得莫大	*별드믈다	省喜	*성희
-------	----	-------	-------	----	-----

- 得-드 <天3>참조
- 莫 [中]慕各切[mak], 明鐸開一入宕 [正]막(맏) [俗]맏 [左]맏 [右]모
- 喜 [中]虛里切[xiə], 曉止開三上止 [正]희 [俗]\*희 [左]희 [右]희

별드믈다: [벼(ᄒᆞᆫ) + ㅅ(ㄷ)] + 드(ᄒᆞᆫ) + 맏 + 다                      성희: 승 + 희  
 piəl-ti-mil-ta = pie + z(r)-tei-mao + ta                      siəŋ-hi = ʃəŋ-xi

〈天36〉	大風	揶把論 <sup>42)</sup>	*큰브름	打捧	*대풍
-------	----	--------------------	------	----	-----

42) 제2단의 “揶把論”에서 “揶”은 “큰”의 사음으로 원본 기록에는 “措”로 기록되어 있으나, 초성과 종성에서 각각 그 연관성 찾을 수 없으므로, 姜信沆(1995, p.29)에서 런던본





춘바름: 찬+바+룬

ch'en-pe-rem=ts<sup>h</sup>an-pa-lun

량풍: 량+봉

liang-puŋ=liang-fuŋ

〈天39〉	有雲	故論以思大	*구름있다	與穩	*유운
-------	----	-------	-------	----	-----

- 以思-잇 〈天29〉참조<sup>44)</sup>
- 與 [中]以諸切[jio], 余魚開三平遇 [正]유 [俗]\*유 [左]유 [右]유

제2단의 “以思”는 한국어 “잇”의 종성 -s을 “思”의 초성을 이용하여 사음한 것으로서 〈天29〉에서는 한국어 “잇”에 대한 사음으로도 사용되었다.

구름있다: 구+룬+[이+入(入)]+다

ku-rum-is-ta=ku-lun-i+s-ta

유운: 유+운

iu-un=i<sup>h</sup>-un(uən)<sup>45)</sup>

〈天40〉	無雲	故論額大	*구름없다	莫穩	*무운
-------	----	------	-------	----	-----

- 額 [中]五陌切[ŋɛk], 疑陌開二入梗 [正]익 [俗]왕<sup>46)</sup>
- 莫 〈天35〉 참조

제3단의 “莫”은 한국 한자음 “무”에 대한 사음인데, 〈天35〉에서는 “말”에 대한 사음으로도 사용되었다.

구름없다: 구+룬+왕+다

ku-rum-əp(s)-ta=ku-lun-ei<sup>?</sup>-ta

무운: 말+운

mu-un=mao-un

44) 이하 제2단의 “以思”에 대한 분석은 모두 〈天29〉를 참조하도록 한다.  
 45) 韓中 譯音의 中聲 “<sup>h</sup>iu”를 [i<sup>h</sup>]로 재구한 이유는 〈天20〉 “完”에 대한 譯音 中聲 “<sup>h</sup>iu”의 “<sup>h</sup>iu”에 대한 재구 이유와 같다.  
 46) 《洪武正韻譯訓》에서 “額”은 正音에서 이미 喻母에 편입된 글자임에도 불구하고 俗音 기록에서는 여전히 初聲을 疑母인 “<sup>h</sup>왕”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극히 특수한 용례이다. 일반적으로 疑母 글자들은 喻母에 병합되었으며, 독립된 疑母 아래에서도 俗音 기록에서는 喻母를 사용하고 있어, 당시 현실음에서 疑母는 이미 喻母 즉 영성모에 귀속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고에서는 俗音 “<sup>h</sup>왕”를 “<sup>h</sup>왕”으로 수정한다.

〈天41〉	白雲	害故論	*흰구름	迫穩	*빅운
-------	----	-----	------	----	-----

- 害-흰 <天2>참조
- 迫 [中]博陌切[pek], 幫陌開二入梗 [正]빅 [俗]빙

제2단의 “害”는 한국한자음 “흰”에 대한 음역으로, 한국어 終聲 -ㄴ의 사음에 개음절을 사용하였다. 한편, “害”는 <天2> 등에서 “日”의 의미인 “히”에 대한 음역으로 주로 사용되었다.

흰구름: 해+구+룬

hein-ku-rum=xai-ku-lun

빅운: 빙+운

peik-un=pei<sup>2</sup>-un

〈天42〉	黃雲	奴論故論	*누른구름	黃穩	*황운
-------	----	------	-------	----	-----

- 奴 [中]乃都切[nu], 泥模合一平遇 [正]누 [俗]\*누 [左]누 [右]누
- 黃 [中]胡光切[ɣuaŋ], 匣唐合一平宕 [正]황 [俗]\*황 [左]황 [右]황

누른구름: 누+룬+구+룬

nu-rin-ku-rum=nu-lun-ku-lun

황운: 황+운

huaŋ-un=xuaŋ-un

〈天43〉	紅雲	本根故論	*블근구름	哄穩	*홍운
-------	----	------	-------	----	-----

제2단에서 “本”은 한국어 “블”에 대한 음역으로 終聲 -ㄴ을 [-n]韻尾 글자로 사용하고 있다.

- 本 [中]布付切[puən], 幫混合一上臻 [正]븐 [俗]븐 [左]븐 [右]븐
- 哄 [中]胡貢切[ɣuŋ], 匣送合一去通 [正]홍 [俗]\*홍

블근구름: 븐+근+구+룬

pil-kin-ku-rum=pən-kən-ku-lun

홍운: 흥+운

hoŋ-un=xuŋ-un

〈天44〉	黑雲	格悶故論	*거믄구름	哈穩	*흑운
-------	----	------	-------	----	-----



- 以思-잇 <天29><天39>참조

비잇다: 비(⊙) + [이+入(云)] + 다      유우: 유+우  
 pi-is-ta=pi-i+s-ta      iu-u=i~~ㅅ~~-u

<天48>	無雨	必額大	*비없다	莫五	*무우
-------	----	-----	------	----	-----

- 額大-없다 <天40>참조

비없다: 비(⊙) + 잉 + 다      무우: 말+우  
 pi-əp(s)-ta=pi-eiʔ-ta      mu-u=mao-u

<天49>	雷嚮	別刺文大	*벼락운다	屢香	*뢰향
-------	----	------	-------	----	-----

- 別刺-벼락 <天7>참고
- 文      [中]無分切[mǐuən], 明文合三平臻 [正]훈 [俗]훈 [左]훈 [右]훈
- 香      [中]許良切[xiāŋ], 曉陽開三平宕 [正]향 [俗]\*향 [左]향 [右]향

제2단의 “文”은 한국어 “운”에 대한 사음이며, <天6> 등의 한국 한자음 “운”에 대하여는 “穩”[un]을 사용하고 있다. 《四聲通解》에서 “文”은 明母가 아닌 薇母에 배열시키고 있다. 左쪽과 右쪽의 기록에서도 初聲에 모두 “ㅁ”[w]를 사용하고 있으며, “훈”은 [wən]으로 재구된다.

벼락운다: 벼(⊙) + 랑 + 훈 + 다      뢰향: 룰 + 향  
 piə-rak-un-ta=piɛ-laʔ-wən-ta      roi-hiaŋ=ləu-xiaŋ

<天50>	霧罩	按蓋底格大	*안개디거다	五左	*무조
-------	----	-------	--------	----	-----

- 按蓋-안개 <天11>참조
- 底格大-디거다 <天23>참조
- 左      [中]臧可切[tsa], 精寄開一上果 [正]저 [俗]\*저 [左]저 [右]조

안개디거다: 안+개+디+기(⊙)+다      무조: 우+저  
 an-kai-ti-kə-ta=an-kai-ti-kei-ta      mu+co=u+tsɔ



〈天54〉	氷凍	我稜額勒大	*어름얼다	稟董	*빙등
	• 我	[中]五可切[ŋa], 疑哿開一上果 [正]어 [俗]어 [左]어 [右]오			
	• 稜	[中]魯登切[ləŋ], 來登開一平曾 [正]링 [俗]룽 <sup>48)</sup>			
	• 額勒-얼	額〈天40〉참조, 勒〈天25〉참조			
	• 稟	[中]筆錦切[pjəm], 幫寢開三上深 [正]*빔 <sup>49)</sup> [俗]*빈 [左]빈 [右]빈			
	• 董	[中]多動切[tuŋ], 端董合一上通 [正]둥 [俗]*둥			

제2단의 “額勒”는 한국어 “얼”에 대한 사음으로, 첫 번째 음절로 初聲과 中聲을 나타내고 두 번째 음절의 聲母를 이용하여 終聲을 사음한 것이다. 제3단의 “稟”은 “氷”에 대한 한국 한자음 “빙”을 사음한 것으로써 한국어 [-ŋ] 終聲 음절을 [-n] 韻尾 음절로 사음하고 있다.

어름얼다: 어+릉+[의(°)+르(ㄹ)]+다      빙등: 빈+등  
 ə-rim-əl-ta=o-ləŋ-ei+l-ta                      piŋ+tuŋ=pin+tuŋ

〈天55〉	氷化	我稜那憂敢大	*어름노가간다	稟華	*빙화
	• 我稜-어름	〈天54〉참조			
	• 那-노	〈天17〉〈天22〉참조			
	• 憂	[中]古黠切[kæt], 見黠開二入山 [正]갸[갈] [俗]*갹			
	• 敢	[中]切古覽[kam], 見敢開一上咸 [正]감 [俗]간 [左]간 [右]간			
	• 華	[中]戶花切[ɣwa], 匣麻合二平假 [正]화 [俗]*화			

제2단의 “那”는 한국어 “노”에 대한 사음이며, 〈天17〉과 〈天22〉에서는 각각 “높”과 “나”에 대한 사음으로도 사용되었다.

48) “稜”자는 《韻譯老乞大·朴通事》에 출현하지 않지만, 중고시기 동일 어음조건인 “冷”에 대하여는 左音과 右音에서도 모두 “릉”으로 기록하고 있다.

49) “稟”자는 《四聲通解》에는 출현하지 않으며, 《洪武正韻譯訓》에서도 寢韻의 來母 아래 “립”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稟”자 아래 來母 “力錦切” 외에도 幫母 “彼金切”에 대한 어음을 소개하고 있으며, 《韻譯老乞大·朴通事》의 左音과 右音에 모두 幫母의 俗音 “빈”을 따르고 있으므로, 正音의 기록은 “빔”을 취한다.

어름노가간다: 어+릉+나+가(ㄷ) +간+다      빙화: 빈+화  
 ə-rim-no-ka-kan-ta = o-ləŋ-na-kia-kan-ta      piŋ+hua = pin-xua

#### IV. 終聲 寫音의 대응관계

##### 1. 破裂音 終聲 대응 문제

“入聲”은 入聲韻에 해당하는 글자들을 기타 성조인 平聲 上聲 去聲과 구별하여 독립적인 하나의 성조로 귀납시켜 사용해온 명칭이다. 따라서 入聲의 소실을 논할 때, 入聲韻의 소실과 성조로서의 入聲 소실은 상호 연관을 가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소실의 간극을 고려할 때, 그 소실 시기만큼은 별개로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이를테면 현대 중국어의 각 방언에 존재하는 入聲韻과 入聲의 형태는 통시적인 각 도에서 바라볼 때 몇 가지 단계의 분류가 가능하다. 전통음운학의 입장에서 入聲의 형태를 중심으로 현대 중국어 각 방언을 분류해 보면, 첫째, 중고한어와 같이 無聲 破裂音 韻尾 [-p], [-t], [-k]를 모두 보존하고 있는 방언, 둘째, 無聲 破裂音 韻尾 [-p], [-t], [-k] 중 전체 또는 일부가 약화되어 聲門 破裂音 韻尾 [-ʔ]로 실현되고 있는 방언, 셋째, 入聲韻 韻尾는 모두 소실되었으나, 聲調에 있어서는 여전히 平聲 上聲 去聲과는 구별되어 독립적인 성조를 이루고 있는 방언, 넷째, 韻尾의 소실은 물론 성조에서도 기타 平聲, 上聲, 去聲에 각각 귀속되어 陰聲韻 성조와 구별이 없어진 방언으로 대별된다. 이러한 방언 현상들을 통해 우리는 入聲韻 소실의 통시적 변화단계를 엿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위에 소개한 네 단계 중 두 번째 단계까지는 入聲韻과 入聲이 동시에 존재하는 단계로 보아야 하며, 세 번째 단계에서는 入聲韻은 소실되었지만 入聲은 여전히 존재하는 단계로 보아야 하고, 네 번째 단계에 속하는 방언일 경우에 入聲이 완전하게 소실된 단계라고 판단할 수 있다.

《朝鮮館譯語》에서 한국어 破裂音 終聲 중 [-p]와 [-k]에 대한 중국어 寫音은 入聲韻과 陰聲韻 두 부류로 대응되고 있으며, [-t] 음절에 대해서는 단음절로 대

응시키지 않고, 2음절을 사용하여 사음하고 있는데, 이 두 음절 중 제2음절 “思”자의 성모 [s-]를 이용하여 사음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破裂音 終聲 [-p]와 [-k]를 入聲韻 韻尾 [-ʔ]로 寫音한 경우.

〈天7〉략:刺([-k]:[-ʔ]); 〈天13〉묵-墨([-lk]:[-ʔ]); 〈天27〉덥-得([-p]:[-ʔ]);  
 〈天33〉적-帑([-k]:[-ʔ]); 〈天40〉없-額([-p]:[-ʔ]); 〈天41〉박-迫([-k]:[-ʔ]); 〈天44〉후-哈([-k]:[-ʔ]); 〈天33〉적-帑([-k]:[-ʔ])

이상은 중복되는 寫音의 경우 가장 먼저 출현하는 대응관계만 추려낸 것이다.

둘째, 破裂音 終聲 [-p]와 [-k]를 陰聲韻으로 사음한 경우.

〈天17〉늘-那[-a]; 〈天19〉붉-把[-a]; 〈天28〉렵-略[-iao]

이 중 “略”는 藥韻에 속하는 글자들은 近代漢語 入聲韻 글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陰聲韻化가 실현된 글자들이다.

셋째, 破裂音 終聲 [-t] 음절을 두 개의 음절로 사음하고 제2음절의 聲母를 통해 終聲 [-t]를 寫音하여 습합시킨 경우.

〈天29〉“앗”-以思; 〈天39〉앗-以思

“以思”의 제2음절인 “思”의 聲母 [s-]를 이용하여 한국어 終聲 [-t]를 寫音하고 있다.

위의 예들 중 셋째의 경우는 비록 음절과 음절이 각각 1:1로 대응하지는 않지만 한국어의 終聲 [-t]를 정확히 寫音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 관계만으로는 入聲韻의 소실여부를 판가름하기 어렵다. 오히려, 첫째와 둘째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破裂音 終聲의 寫音에 陰聲韻보다는 聲門破裂音 韻尾 [-ʔ]를 가진 入聲韻으로 寫音한 경우가 훨씬 많아서 陰聲韻으로의 寫音이 예외 현상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朝鮮館譯語》에서 한국어 開音節의 寫音에 入聲韻 글자를 사용하고 있는 예도 적지 않다.



〈天1〉하-哈: 〈天4〉버-別: 〈天8〉바-必: 〈天9〉서-色: 〈天9〉라-立: 〈天14〉호-黑: 〈天14〉라-立: 〈天18〉ㄱ-格: 〈天19〉가-夏: 〈天20〉거-格: 〈天25〉더-迭: 〈天30〉가-吉: 〈天35〉드-得: 〈天37〉저-哲: 〈天40〉무-莫

이상을 종합해볼 때, 《朝鮮館譯語》에 나타난 寫音만으로 入聲韻의 소실을 논하기에는 여전히 명확한 답을 내리기 어렵다. 물론, 선행연구들에서처럼 《朝鮮館譯語》 시기에 入聲韻이 소실되었다는 전제하에서라면 위 예시 중 첫째의 경우에서도 한국어 破裂音 終聲을 중국어 陰聲韻에 대응시키고 있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俗音은 물론이요 今俗音에서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入聲韻 [-ʔ]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는 터이기 때문에, 그 해답은 入聲韻 韻尾 [-ʔ]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에서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入聲韻 韻尾 [-ʔ]는 중고시기의 入聲韻 [-p][-t][-k] 韻尾가 상호간의 구별이 없어지며 陰聲韻化 되는 과도기적 聲門破裂音 韻尾이다. 당시 한국인의 시각으로 보면, 이는 기타 陰聲韻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促急한 성분의 韻尾였을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중국인들이 전통적으로 말하는 入聲韻이란 중고시기의 破裂音 [-p][-t][-k] 韻尾만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어음체계 내에서의 음위적 변별력을 기준으로 본다면, 聲門破裂音 [-ʔ] 韻尾 음절은 오히려 陰聲韻에 가까운 성질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朝鮮館譯語》 寫音에 사용된 일부 글자들이 한국어의 破裂音 終聲 음절과 開音節을 寫音하는데 동시에 사용되기도 한 것은 이를 방증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哈〈天1〉하/〈天44〉혹: 得〈天3〉드/〈天35〉드/〈天27〉덥: 哲〈天33〉적/〈天37〉저: 把〈天5〉바/〈天19〉븍

중국의 韻書에 나타난 反切의 재구를 통해서도 기본적으로 [-ʔ]의 명확한 音價를 발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로 각 韻書의 分韻체계와 현대방언의 어음현상을 기초로 陰聲韻化를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 초기 한국의 음운학자들은 비록 당시의 중국어 入聲韻이 [-p][-t][-k] 상호간의 차이는 없어졌으나, 藥韻의 글자들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陰聲韻과는 여전히 차이가 있는 [-ʔ]를 인지하고 “-ㅎ”를 통해 기존의 陰聲韻과는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

본고의 《朝鮮館譯語》寫音 분석에 따르면, 중국인들이 당시의 중국어로 한국어 어음을 전사함에 있어서, 이미 [-ʔ] 단계에 들어선 入聲韻 글자들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陰聲韻처럼 활용하고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어음체계의 규범화가 뚜렷하지 않았던 당시 상황에서, 현실 어음에 존재하는 [-ʔ]에 대하여 入聲韻이라기 보다는 陰聲韻 내에서의 장단의 차이로만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과거 각 破裂音 간의 경계가 뚜렷했던 入聲韻과 비교해볼 때, 이미 중국인들 내부에서 [-ʔ]과 陰聲韻은 이미 그 音位的 변별력을 상실하였다고 보는 해석이 가능하다.

둘째, 당시 현실 어음에 존재하는 [-ʔ]가 어음체계 내에 존재하여 음성운과는 여전히 차별화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중국어로 한국어 어음을 전사하는 과정에서 한국어음의 破裂音 終聲 [-p][-t][-k]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중국의 陰聲韻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였을 것임은 추측 가능한 일이다. [-t] 終聲 음절의 寫音에서 보이는 “以思”의 제2음절인 “思”의 聲母 [s-]는 정확한 사음을 위한 노력이라고 여길 수 있다. 물론 [-p]와 [-k]에 대한 破裂音 終聲 음절의 寫音에 [-ʔ] 외에도 陰聲韻(〈天17〉雋-那[-a]; 〈天19〉擘-把[-a])이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雋다”, “擘다” 등 제1음절의 終聲이 파열음일 때, 제2음절의 “다”가 “따”로 경음화되는 한국어 어음 현실을 고려한다면, “那大”와 “把大”는 “나따”와 “바따”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어의 寫音 과정에서는 허용 가능한 어음체계 간의 한계로 볼 수 있다. 다만, 한국어 개음절을 入聲韻 [-ʔ] 글자로 寫音한 것에 대하여는 당시 중국인들의 시각에 入聲韻 [-ʔ]를 陰聲韻과의 독립 여부를 떠나서, 陰聲韻과의 차이를 長短의 차이로 여겼을 수 있기 때문에 寫音에 사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따르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기존의 《朝鮮館譯語》寫音에 관한 연구에서 대부분 入聲韻의 消失을 여과 없이 주장하고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으며, 본고에서는 본인의 기존 견해처럼 15세기 중국 북방 중국어에서도 여전히 藥韻을 제외한 入聲韻에는 [-ʔ]는 존재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 2. 陽聲韻의 병합 문제

현대한어의 陽聲韻은 [-n]과 [-ŋ]으로 대별되며, 중고시기의 陽聲韻 중 [-m]은 근대한어 시기에 [-n]에 귀속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朝鮮館譯語》에 나타난 한국어 鼻音 음절에 대한 寫音의 대응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한국어 [-m] 終聲: 중국어 [-n] 韻尾

〈天5〉름-論; 〈天6〉름-論; 〈天14〉음-引

둘째, 한국어 [-n] 終聲: 중국어 [-n] 韻尾

〈天6〉운-穩; 〈天10〉눈-嫩; 〈天51〉눈-根; 〈天20〉만-完; 〈天42〉른-論

셋째, 한국어 [-n] 終聲: 중고시기 중국어 [-m] 韻尾

〈天1〉턴-添; 〈天25〉단-膽

넷째, 한국어 [-ŋ] 終聲: 중국어 [-ŋ] 韻尾

〈天4〉성-省; 〈天5〉풍-捧; 〈天9〉상-爽; 〈天13〉청-逞; 〈天15〉상-賞; 〈天24〉당-掌

다섯째, 한국어 [-ŋ] 終聲: 중국어 [-n] 韻尾

〈天31〉명-閔

여섯째, 한국어 [-ŋ] 終聲: 중고시기 중국어 [-m] 韻尾

〈天54〉빙-稟

이 중 〈天31〉과 〈天54〉에 보이는 寫音은 역대 중국어 어음체계를 고려할 때, 청취과정에서의 오류로 보이며, 첫째와 셋째의 경우에서 보이는 [-n]과 [-m]의 교차 대응은 당시 이들이 이미 [-n]으로 귀속되어 상호간의 구별이 없어졌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조선 초기 韓中 譯音에서도 이러한 어음변화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俗音 및 今俗音에서도 대체로 중고시기 [-m]을 [-n]으로 기록하고 있어, 《朝鮮館譯語》 시기에는 [-m]이 이미 [-n]에 귀속되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 3. [a]의 생성 문제

선행연구들에서 《朝鮮館譯語》의 寫音을 통해 [a]의 생성 문제를 주장하는 근거는 한국어 [-l] 終聲에 대한 2음절 습음 형식의 대응이다. 먼저, 출현하는 습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天1〉늘-嫩二; 〈天3〉들-得二; 〈天4〉별-別二

위에서 보듯, 습음의 제2음절인 “二”를 통해 한국어 [-l] 終聲을 寫音하고 있다. 주지하듯 “二”는 현대한어에서 [a]로 발음되고 있다. [a]의 발음성질을 놓고 볼 때, [a]을 사용하여 중국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l] 終聲을 寫音하는 것은 대단히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朝鮮館譯語》 시기에 이미 [a]이 생성되었음을 논하는 것은 억측이다. “二”는 “兒而耳餌”등과 같이 중고시기 止攝 日母 開口 3等に 속하는 글자로서 《中原音韻》(1324년)에서는 모두 支思韻 日母에 배열하고 있으며, 《等韻圖經》(1606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서 影母에 배열하고 있다. 한편, 15, 16세기 韓中 譯音 자료에서는 俗音과 左音은 물론이요, 右音에서도 여전히 聲母를 “ㄷ”로 기록하고 있으며, 《朴通事諺解》(1677년)에 이르러서야 左音과 右音에 모두 “ㅇ”을 사용하고 있다. 俗音 등의 譯音에서 日母 글자의 譯音 보이는 初聲 “ㄷ”는 中聲 “一”와 결합하는 전형적인 舌尖後音의 표지이며, [z]로 재구하는데 무리가 없다.

따라서 본문에서도 설명하였듯이, 한국어 [-l] 終聲의 寫音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제2음절의 “二”은 습음 형식의 寫音에서 제2음절 聲母 [z]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朝鮮館譯語》에서 습음 형식의 제2음절 聲母를 통한 한국어의 終聲을 寫音하고 있는 예는 위의 예시 외에도 [얼-額勒(“-ㄹ”)]; [침-尺卜(“-ㄹ”)]; [덥-得卜(“-ㄹ”)]; [읏-以思(“-ㄹ”)]; [읏-以思(“-ㄹ”)]; [늣-覓思(“-ㄹ”)] 등 적지 않다. 그러므로 한국어 [-l] 終聲의 寫音을 위해 사용된 “二”를 현대한어의 어음에 구속되어 《朝鮮館譯語》 시기에 이미 [a]이 생성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적어도 16세기까지는 아직 [a]이 생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4. 한국어 舌側音 [-l]終聲에 대한 인식 문제

한국어의 舌側音 “-ㄹ”([-l]) 終聲은 중국어 어음체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韻尾였으므로, 이에 대한 《朝鮮館譯語》의 寫音 상황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첫째, 入聲韻 [-?]대응:

〈天24〉갈-吉; 〈天30〉블-卜

둘째, 陰聲韻 대응:

〈天22〉출-處; 〈天29〉결-果; 〈天34〉말-米; 〈天3〉월-臥; 〈天10〉설-捨; 〈天35〉  
물-莫(藥韻[mao])

셋째, 陽聲韻 [-n] 대응

〈天2〉살-忍; 〈天12〉슬-沁([m→n]); 〈天13〉늘-嫩; 〈天20〉글-根; 〈天21〉물-悶;  
〈天43〉블-本

넷째, 습음 형식의 제2음절 聲母 [-l] 대응

〈天1〉늘-嫩二; 〈天3〉들-得二; 〈天4〉별-別二; 〈天54〉얼-額勒

이상에서와 같이 《朝鮮館譯語》에서는 중국어 어음체계의 한계로 인하여 한국어의 舌側音 “-ㄹ”([-l]) 終聲을 사음하기 위하여 入聲韻, 陰聲韻, 陽聲韻 등의 음절이 고르게 사용되었다. 중고시기 중국어 어음체계에서 [-t] 韻尾를 가지는 入聲韻 한자들은 한국 한자음에서 예외 없이 “-ㄹ”([-l])로 발음되고 있지만, “-ㄹ”([-l]) 자체의 어음 성질은 破裂音 終聲을 가지는 入聲韻과는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朝鮮館譯語》에서도 入聲韻으로의 寫音보다는 [-l]와 동일한 舌音 계열의 陽聲韻 [-n]로 대응시킨 것이 적지 않고, 습음 형식에서 “二”([z-])와 “勒”([l-]) 등 제2음절의 聲母를 이용하는 방법 등 적절한 寫音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朝鮮館譯語》의 轉寫者들은 중국의 어음체계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한국어의 [-l]에 대하여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陰聲韻과의 대응도 적지 않은데, 이는 당시 다양한 終聲을 가지는 한국어의 어음체계에 비해서 [-n], [-ŋ], [-ʔ] 등 소수의 한정된 韻尾를 가지는 중국어 어음체계의 한계가 빚어낸 결과라고 판단된다.

## V. 결론

이상의 논의를 통해 근대한어 시기, 특히 15, 16세기의 중국어 어음체계의 韻尾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당시 중국어 현실음에서 聲門破裂音 [-ʔ] 韻尾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음

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陰聲韻化의 過渡期的 韻尾 [-ŋ]가 중국인들의 인식 속에 여전히 陰聲韻과는 독립된 音位的 變別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함부로 속단하기 어렵다.

둘째, 陽聲韻에서 [-m] 韻尾는 이미 [-n]에 귀속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兒化韻 [a]은 적어도 16세기까지는 생성되지 않았으며, [늘-嫩二] 등의 제2음절 “二”은 [a]을 이용한 [-l] 終聲의 寫音이 아니라, “二”의 聲母인 [z-]를 사용하여 한국어 [-l] 終聲을 寫音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한국어의 [-l]에 대하여 중국인들은 入聲韻이 아닌 舌側音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지만, 중국어 어음체계에 존재하지 않은 어음이었기 때문에 한국어 [-l] 終聲의 寫音을 위해 같은 舌音 계열의 [-n] 韻尾 글자를 이용하거나 合音 형식에서 제2음절의 聲母를 통해 [-l] 終聲을 寫音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參考文獻】

- 《朝鮮館譯語》, 《華夷譯語》, 서울대학교 圖書館本(寫本).  
 崔世珍, 《四聲通解》(1517), 대제각, 1985년 영인본.  
 ——, 《翻譯老乞大·朴通事》(1517前), 대제각, 1985년 영인본.  
 ——, 《訓蒙字會》(1527), 弘文閣, 1985년 영인본.  
 周德清, 《中原音韻》(1324), 中華書局, 中國, 1978년 영인본.  
 劉 鑾, 《經史正音切韻指南》(1336), 藝文印書館, 臺灣, 1975년 영인본.  
 樂韶鳳 등, 《洪武正韻》(1375), 臺灣商務印書館, 臺灣, 1983년 영인본.  
 申叔舟, 《洪武正韻譯訓》(1455), 고려대학교출판부, 1974년 영인본.  
 何九盈, 《中國古代語言學史》, 中國, 廣東教育出版社, 1995.  
 郭錫良, 《漢字古音手冊》, 中國, 北京大學出版社, 1986.  
 遠藤光曉, 《〈翻譯老乞大·朴通事〉漢字注音索引》, 日本, 好文出版, 1990.  
 姜信沆, 《四聲通解 研究》, 新雅社, 1973.  
 ——, 《朝鮮館譯語研究》, 成均館大學校出版部, 1995.  
 남광우, 《教學古語辭典》, (주)교학사, 2009(12쇄).  
 심소희, 《한자정음관의 통시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3.

- 朱星一, 《15, 16世紀朝漢對音研究》, 中國, 北京大學校博士學位論文, 2000.
- , 〈조선초기 韓中 對譯音 자료를 통해 본 捲舌音의 형성과정〉, 中國語文論譯叢刊 第14輯, 中國語文論譯學會, 2005.
- 文璇奎, 〈朝鮮館譯語攷論〉, 《亞細亞研究》5권2호, 아세아문화연구소, 1962.
- , 〈〈鷄林類事〉와 〈朝鮮館譯語〉의 〈l(ㄹ)表記法 考察〉〉, 《국어국문학》제22권, 국어국문학회, 1960.
- 金喆憲, 〈〈朝鮮館譯語〉研究〉, 《국어국문학》제26권, 국어국문학회, 1963.
- 이윤동, 〈〈조선관역어〉 국어 모음 寫音에 관하여〉, 《어문학》제71호, 한국어문학회, 2000.
- , 〈〈조선관역어〉중성 사음에 대하여〉, 《어문학》제76호, 한국어문학회, 2002.
- 金泰慶, 〈〈朝鮮館譯語〉로 본 15세기 중국어 음운 특징〉, 《중국어문학논집》제46호, 중국어문학연구회, 2007.
- 蔡瑛純, 〈〈華夷譯語〉의 〈朝鮮館譯語〉에 나타난 한어 譯音의 限界性 研究〉, 《중어중문학》제41집, 한국중어중문학회, 2007.

## 【中文提要】

《朝鮮館譯語》是明代初期出版的一种中韓詞彙集, 反映出十五世紀中國語音特徵。本論文通過考察《朝鮮館譯語》中的注音內容, 研究入聲韻尾的消失、陽聲韻的合併、卷舌音[ʌ]的產生、韓國語舌側音[-l]的漢語對應問題等一些從中古到近代時期的各個韻尾變化現象。《朝鮮館譯語》中有天文門·地理門·時令門·樹木門·鳥獸門·宮室門·器用門·人物門·人事門·身體門·衣服門·聲色門·珍寶門·飲饌門·文史門·數目門·干支門·卦名門·通用門等共19門, 達到596個朝鮮語詞彙是用中國文字而音譯的。本論文以天文門中的注音爲主, 進行考察了漢語韻尾的變化過程。

以往的研究大部分都是利用當時中國韻書的反切, 而本論文採用了朝鮮初期譯音材料中出現的正音、俗音、今俗音、左音、右音等當時給漢語的訓民正音注音, 得出了以下結論。

第一、當時中國語現實音中, [-ʔ]韻尾還是依然存在的。不過[-ʔ]在中國人的認知中依然和陰聲韻是否是獨立成音位還不能輕易的快速判斷。

第二、可以判斷陽聲韻中[-m]韻尾，已經歸屬到[-n]中。

第三、儿化韻[ə]，至少到16世紀為止還沒有形成。

第四、可以知道關於韓文的[-l]，中國人雖然不是看待入聲韻而是舌側音。但是因為漢語語音體系中并不存在[-l]韻尾的原因，給韓語終聲[-l]寫音時，有的使用了一樣的舌音系列的[-n]韻尾文字，有的利用合音形式中第二音節的聲母[ɹ-]來注音。

### 【主題語】

朝鮮館譯語，華夷譯語，近代漢語，韻尾，入聲韻，陽聲韻，陰聲韻，譯音

투고일: 2014. 1. 15 / 심사일: 2014. 1. 20~2. 5 / 게재확정일: 2014. 2. 10